

「山海經·五藏山經」에 나타난 山의 개념

徐 敬 浩*

1.

이 글은 山海經의 다섯부분¹⁾ 중에서 첫부분인 五藏山經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의 사람들이 山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특수한 관념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山海經의 다섯부분 중에서 五藏山經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 부분의 기록이 주로 山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의 중국인이 산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五藏山經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도 山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기록의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보다 범위가 넓은 연구에서는 五藏山經 이외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산에 대한 개념도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五藏山經과 그 이외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산에 대한 인식의 형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고대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지만, 이 짧은 글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전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五藏山經에 국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사상과 문학에서 山은 특수한 의미를 지닌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산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는 곳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무

* 서울大 人文大 中文學科 專任講師

1) 現存하는 山海經은 五藏山經, 海外四經, 海內四經, 大荒四經, 海內經의 다섯부분으로 편집되어 있다.

엇인가 신비함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山단을 신비한 영역으로 인식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고대 중국인의 의식 세계를 보면 黃河²⁾와 그들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고 믿었던 바다에도 신비함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黃河와 바다에 관한 인식은 산에 대한 인식보다 투철하거나, 혹은 보편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秦始皇이 신선을 찾으러 사람을 보낸 곳이 바다인데, 정작 신선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곳은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다는 蓬萊山이었으니,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속에 존재한 산의 중요성을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고대의 五嶽에 관한 의식이거나 「共工觸不周之山」의 이야기³⁾를 보아도 고대의 중국인이 자신이 살던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山에 부여한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五藏山經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인의 산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개연적으로 추측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자료의 분석과 연결될 때에는 고대 중국인의 의식세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중국인의 山에 대한 개념은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 변화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고대의 小說的 문장에 나타난 바를 보면 대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즉 六朝時期까지의 문장을 보면, 산은 인간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인간이 山에 들어가면 여러가지의 기이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六朝時期까지에는 산이 인간사회와는 떨어져 있는, 초

2) 이것은 단순히 黃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류도 포함하는 것이다. 黃河의 傳說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은 「河圖洛書」의 傳說이라 할 수 있다.

3) 이 이야기는 列子·湯問篇에 나온다. 「昔者, 女媧氏鍊五色石以補其闕, 斷鼇之足, 以立四極. 其後共工氏與顓頊爭爲帝, 怒而觸不周之山, 折天柱, 絕地維故天傾西北, 日月星辰就焉, 地不滿東南, 故百川水潦歸焉.」

인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특수한 영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 또 六朝時期의 志怪를 보면 인간이 鬼를 비롯한 각종의 妖物과 마주치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산속에서이다. 또 陶淵明의 桃花源記에서도 인간사회와 격리되어 사는 사람이 택한 곳은 깊은 산속인 것이다. 또 神仙家의 이야기의 중심이 산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唐代 중엽부터의 傳奇를 보면 이야기의 중심이 山에서 점점 큰 호수나 강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柳毅傳에서 주인공이 용왕의 딸을 만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신비롭게 여기는 영역이 산이 아니라 호수로 옮겨간 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黃河나 揚子江에 얽힌 전설은 예로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唐代부터는 신비한 영역으로 산보다는 강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이 뚜렷한 현상인 것이다. 이것은 宋代에도 계속되어 青瑣高議⁵⁾와 같은 책에 수록된 唐宋間의 소설적 문장에서 주인공이 여인—대부분이 鬼, 동물의 화신, 혼령 등이지만—을 만나는 곳은 대부분의 경우 강에서이며, 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또 宋代로부터 시작된 話本에서도 산에 관한 언급이나 산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산은 중국인의 의식속에서 강과 함께 두가지의 신비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으니, 劉禹錫의 陋室銘에서의 “山不在高, 水不在深”이라는 표현이 산과 강에 대한 두가지의 인식이 공존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고대 중국인의 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면에서 고대 중국인의 의식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면에서 중국의 고대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4) 이러한 觀念을 나타내어 주는 資料로 抱朴子·登涉篇(十七卷)을 들 수 있다.

5) 宋·劉斧가 편찬한 小說集. 前集十卷, 後集十卷, 別集七卷으로 되어 있으며, 六朝時期에서 宋代에 이르기까지의 小說의 文章을 모아 놓은 책이다.

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山海經의 五藏山經은 고대중국인의 산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는 현존하는 最古의 자료이다. 따라서 五藏山經을 통해서 고대의 중국인이 가지고 있던 산에 대한 개념을 분석한다는 것은 곧 중국인의 산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개념의 형태를 밝히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오늘날 고대 중국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山海經은 매우 유명한 동시에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자료의 하나이다. 그러나 반면에 山海經은 고대의 전적중에서 가장 덜 연구되어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것은 山海經에 관한 몇가지의 기본적인 요소, 예컨대 작자나 成書時期, 成書의 배경 등에 관한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대의 중국에서도 山海經은 그리 많이 연구된 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山海經이라는 제목은 史記의 大宛列傳에 이미 언급되고 있었지만, 전통시대에 山海經에 주를 붙인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⁶⁾

山海經은 전통적으로 고대의 지리서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러한 인식은 漢書藝文志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대의 藝文·經籍志⁷⁾와 私家的 目錄

6) 전통시대에 나온 山海經의 注는 다음과 같다.

晉·郭璞, 山海經注 18卷.
 明·楊慎, 山海經補注 1卷.
 明·王崇慶, 山海經釋義 18卷.
 清·吳任臣, 山海經廣注 18卷.
 清·汪紱, 山海經存 9卷.
 清·畢沅, 山海經新校正 18卷.
 清·郝懿行, 山海經箋疏 18卷.

7) 前漢書 卷30, 隋書 卷34, 新唐書 卷58.

書⁸⁾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明代의 중엽에서 부터인 것으로 보이는데 胡應麟이 山海經을 “古今語怪之祖”라고 부른 것⁹⁾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目錄書로는 四庫全書總目提要가 山海經을 地理類가 아닌 小說家에 편입시킨 최초의 예이다.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山海經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적 방법, 예컨대 신화학과 민속학의 시각에서 볼 때 山海經의 자료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山海經의 성격도 여러가지 관점에서 규정되었으나, 魯迅이 이 책을 巫書로 규정한 것이나,¹⁰⁾ 沈雁冰이 이 책을 “신화의 보고”라 한 것¹¹⁾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山海經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소수의 학자들이 여전히 이 책을 “실제적인” 지리서로 생각하고, 이 책에 나오는 지명의 고증작업을 계속하였다.¹²⁾ 그러나 그 소수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이 책을 순수하게 실제적인 지리기록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山海經을 지리서로 보는 것은 漢·明帝때에 治水의 임무를 맡은 王景에게 山海經과 禹貢圖, 河渠書를 주었다는 사실¹³⁾에서부터 이미 그 전례가 있지만 전통시대의 학자들이 이 책이 지리서라는 점에 회의를 품지 않은 이유는 그 기록의 형태가 지리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예정이지만, 山海經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명을 중심으로 기록이 전개된다는 점, 정확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리와 방향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의견상으로는 지리서로서의 형태

8) 尤袤, 遂初堂書目, 卷一; 晁公武, 郡齋讀書志, 卷一;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卷8.

9) 小室山房筆叢 卷28.

10) 魯迅, 中國小說史略, p. 9.

11) 玄珠, 中國神話研究 ABC, pp. 39-43.

12) 小川琢治, 「山海經考」, 先秦經籍考, pp. 1-92.

13) 後漢書 106卷.

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지리서로 간주하고 고증을 진행해 온 전통시대와 근세기의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山海經에 수록된 지명중에서 현재의 실제적인 지리상황에 부합되는 것보다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책을 순수한 의미에서 실제적인 지리상황을 고대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山海經을 고대의 지리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의 지리서’라는 말은 현재 운위되고 있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지리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지리개념은 자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적 개념이다. 그러나 고대의 지리개념은 오늘날의 과학적 개념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고대인은 그들이 살고 있던 세계를 단순히 가시적인 차원에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믿은 세계까지를 그들의 지리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개념하에서는 세계는 단순히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며, 그들이 세계에 관해 기술할 때에는 가시적인 측면과 비가시적인 측면, 즉 그들의 의식세계에서만 존재하던 세계가 하나의 체계로 융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기술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믿음을 바친 존재들을 인간세계의 한 부분으로 치환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고대인의 지리개념을 오늘날의 ‘과학적 지리개념’에 대비되는 ‘종교적 지리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종교적 지리개념에 의해서 지배되는 고대인의 의식세계에서는 자연의 여러 부분이 단순히 그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자연은 살아있는 것으로 의식되며, 그것도 단순히 자연의 법칙에 의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자연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특정의 지역, 혹은 특정의 지형에 대한 집단적인 숭

배의식이 생겨났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山海經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지리관념에 입각해서 고대인이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과 또 그들의 영역밖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세계에 대한 파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지리적 개념은 필자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다. 종교학에 서는 聖域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특정의 지점에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신비한 기운이나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 지점에 대한 숭배를 통해 그 신비한 힘과 접촉하려 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다.¹⁴⁾ 이러한 聖域의 설정은 보통의 지점이 아무런 종교적 의미를 띄고 있지 않은 반면에, 聖域이라고 믿어지는 지점만이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띄고 있다는 관념에 근거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종교지리적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이 聖域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聖域이라는 개념을 山海經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부분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聖域이라는 개념이 두가지의 다른 성질, 즉 성스러움과 그렇지 않음을 대비함으로써 도출되는 것인데 반해서, 고대의 중국인이 과연 이러한 대비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聖域의 개념에 있어서 나타나는 고대의 인간이 특수한 지역을 숭배하는 행동유형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聖域이라는 구체화된 개념을 이루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특히 고대의 중국인이 그들의 특정지역에 대한 숭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聖域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카시러(Ernst Cassirer)의 “추상적 지리와 실제적 지리”의 개념¹⁵⁾을 참고하고 있다. 즉 카시러는 고

14) Eliade, Mircea *The Sacred and the Profane*, pp.116-124.

15) Cassirer, Ernst *Essay on Man*, pp.42-43.

대인의 의식세계에서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추상적 지리(abstract geography)의 개념”에서 “실체적인 지리(physical geography)의 개념”으로 옮겨갔다고 보았던 것이다. 추상적 지리개념은 인간이 자연현상의 범칙성을 오늘날 운위되는 과학적인 의미에서 깨닫기 이전에 그들이 접하던 자연환경을 사물을 분류하는 의식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인 것이다. 반면에 실체적인 지리개념이라는 것은 자연의 사물이 인간의 의식속에서 각각의 성질에 따라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그들의 자연환경을 가시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던 방법인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사용하려는 종교적 지리개념은 카시러의 추상적 지리개념의 기본적인 발상을 참고한 것인데, 다만 필자는 이러한 지리적 개념이 고대 중국인의 의식세계에서의 위치가 카시러가 고대인의 의식세계에서 추상적 지리개념이 차지하였다고 생각하는 위치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장래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검증을 통해 논의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

3.

그러면 우선 山海經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지리개념을 이책의 구조를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山海經은 전부 18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18권은 다시 五藏山經(1권~5권), 海外四經(6권~9권), 海內四經(10권~13권), 大荒四經(14권~17권), 海內經(18권)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통시대의 目錄書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시대에 따라 기록된 권수에 차이가 있음¹⁶⁾을 보아서 처음부터 이러한 체제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언제 이 체제가 완성되었는지도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최초로 山海經에 注한 郭璞이

16) 이 차이에 關해서는 拙稿「山海經小考」pp.150-151을 참조하기 바람.

살았던 東晉時期 이전에 현재와 같은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만 분명하다. 한편 民國時期이래의 학자들은 이 다섯부분이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듯 하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먼저 쓰여졌고 어느 부분이 후에 쓰여졌는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民國時期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섯부분에서 앞에 있는 부분일수록 쓰여진 시기가 일렀을 것으로 추측하였는데,¹⁷⁾ 1960년대에 蒙文通은 이러한 일반론을 뒤엎고, 가장 뒤에 있는 海內經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며, 가장 앞에 놓여 있는 五藏山經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⁸⁾ 이러한 차이는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각 부분이 쓰여진 시기는 이르게는 春秋時期의 말엽에서 늦게는 東漢의 후기까지에 이르고 있으니 이것은 거의 700년에 가까운 기간인 것이다.

그런데 山海經의 成書時期가 반드시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의식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중에서 일부는 이 책이 쓰여진 시기의 현실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 혹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고대’의 의식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각 부분의 成書時期에 관한 문제는 山海經의 연구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오늘날 山海經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각 부분의 작자나 쓰여진 시기가 같았건 달랐건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관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짜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각 부분은 이 구조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부분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려는 대상의 부

17) 容肇祖, 『山海經研究地進展』, 山海經新論, pp.15-18.

18) 蒙文通, 『略論山海經地寫作時代及其產生地域』, 中華文史論叢 1卷, pp.43-70.

분적인 기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각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제 쓰여 졌는가에 관계없이 山海經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의식이나, 혹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진 세계를 보는 인식체계 아래에서 쓰여졌음을 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는 山海經의 배경에 관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아직 쟁론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하나의 통일된 인식체계를 나타내어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山海經을 관찰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제목 자체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山海經이라는 제목은 문자 그대로 ‘산과 바다’의 기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이외에는 제목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山海經은 단순한 산과 바다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 우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산에 대한 기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바다에 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 산해경은 산에 관한 기록이지, 결코 바다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서 이러한 제목이 붙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제목의 구체적인 의미는 五藏山經과 海外四經, 海內四經의 세부분을 연결해서 관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다. 五藏山經은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의 지역을 南·西·北·東·中의 방향순으로 산에서 산으로 연결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海外四經은 海外라는 지역을 역시 南, 西, 北, 東의 방향순으로 산에서 산을 연결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海外라는 지역은 다음에 나올 海內라는 지역과 대칭되는 지역으로, 이것은 고대의 중국인이 중국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덩어리로 생각했을 때에 그 사면의 바다의 바깥에 놓여 있는 지역이라고 본다. 그리고 海內四經은 바로 이 사면의 바다의 안쪽에 있는 지역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니, 그 지역은 곧 고대의 중국인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 것이다. 그런데 五藏山經과 海內四經을

비교해 보면 같은 지명이나, 비슷한 기술이 많이 발견되고, 이것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에서 발견된다.¹⁹⁾ 따라서 五藏山經에서 기록된 지역은 바로 고대의 중국인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덩어리이거나 그 일부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부분에서 기록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산이며, 바다에 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²⁰⁾

그런데 어째서 같은 지역을 五藏山經과 海內四經에서 중복하여 기록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부분의 차이는 우선 기록된 산이 어느 정도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五藏山經에서는 산과 산의 거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 그 기록의 전체가 일관성을 띄고 있으나, 海內四經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조밀성이 비교적 느슨해져서 산과 산의 거리도 구체적이지 않고, 기록하는 방법의 일관성도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五藏山經에서는 그 기록의 대상을 다섯방향으로 구분하여 다섯지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海內四經에서는 기록의 대상을 네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지역을 기록하면서도 五藏山經에서는 그 기록이 매우 구체적인 반면 海內四經은 그 기록이 개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五藏山經과 海內四經이 각각 성질을 달리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본다. 즉 五藏山經은 독립적으로 고대의 중국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기록한 것이지만, 海內四經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海外四經과 함께 한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 큰 부분에서는 고대의 중국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과 자신의 발길이 닿지는 않아도 바다너머에 있다고 믿은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체계내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大荒四經의 大荒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海外라는 지역의 바깥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보면 고대의 중국인이 생각한 세계는

19) 예를 들면 西山經에는 昆侖之丘가 있고, 海內西經에는 昆侖之墟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지역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20) 海外四經과 海內四經에서는 기록의 단위가 반드시 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지명이 나오지만, 바다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계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大荒四經을 앞의 세 부분과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우선 이 부분에 서의 기록의 대상은 앞서의 세 부분에서처럼 산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기이한 나라[國]나 특수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다. 또 大荒四經 에서의 방향의 배열은 東, 南, 西, 北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앞서의 세 부분에서 나온 방향의 배열과는 다르다. 따라서 大荒四經을 기록한 사람의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앞서의 세 부분을 기록한 사람의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기에는 어려움 점이 있다. 또 마지막의 海內經은 그 기록의 방법이 다른 17권과는 전혀 다르고 기록대상의 성격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의 세 부분과 같이 검토될 수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에 山海經이라는 제목에서의 산과 바다의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五藏山經과 海外四經, 海內四經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산은 기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이 세 부분에서 산은 언제나 가장 중심적인 기록의 대상이며, 따라서 제목에 관계없이 이 세 부분은 산에 관한 기록인 것이다. 반면에 바다는, 海外四經과 海內四經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산을 기록하는 범위로써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다는 산이 모여있는 지역을 內外로 구분하는 범위로 제시된 것이지, 바다 그 자체가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山海經이라는 제목은 바다를 경계로 해서 나누어지는 각 지역의 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五藏山經, 海外四經, 海內四經을 통해서 나타난 고대인의 세계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우선 五藏山經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록하고, 다음에 海外四經과 海內四經에서 바다를 경계로 해서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던 전 지역을 기록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巨觀的인 관찰에서 巨觀的인 관찰로 전환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五藏山經은 세계의 微觀的

관찰의 기록이며, 海外四經과 海內四經은 세계의 巨視的 관찰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산은 微視的 관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바다는 巨視的 관찰의 단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巨視的 관찰에 있어서의 기록의 단위는 여전히 산이라는 점에서 고대의 중국인들이 산에 부여한 의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山海經의 ‘經’이라는 글자에 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經은 일반적으로 고대의 중요한 전적을 높여 부르는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山海經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대의 중요한 전적에 經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관행은 前漢 말기에 시작된 것인데, 山海經이라는 제목은 그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 袁珂는 經이 經歷[거쳐 지나가는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는데,²¹⁾ 이것은 江紹源의 山海經이 고대의 여행서라는 의견²²⁾과 용어의 차이는 있어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니드햄(Joseph Needham)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²³⁾ 그러나 이 문제는 장래에 보다 깊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山海經에서 經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제목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권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각권 내에서의 작은 단위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漢書藝文志를 보면 經이라는 글자는 儒家의 經典을 제외한 諸子書의 경우에는 극소수의 제목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이 글자가 제목에 붙어 있는 책이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先秦時期의 전적의 제목에서 經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에 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더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1) 袁珂, 〈山海經校注〉, 「…山海經乃其固有之命, 非後人亦非史公以其重要而特尊之爲經也. …其非經典而只是經歷之意.

22) 江紹源, 中國古代旅行之研究.

23) Ronan, Collin A. *The Shorter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2, p. 241.

4.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인 五藏山經의 기록상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五藏山經은 南山經, 西山經, 北山經, 東山經, 中山經의 다섯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권의 명칭을 經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각 經은 여러개의 次經으로 나누어지고, 각 次經은 또 여러개의 條²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條는 하나의 산에 관한 기록이다. 각 次經의 끝에는 그 次經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장 [이것은 條와는 다르다.]이 있고, 각 經의 끝에도 그 經을 개괄하는 설명이 붙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五藏山經의 기록의 기본단위는 條이며, 次經은 여러 條를 묶어 놓은 것이다.

五藏山經에서 기록의 가장 기본단위인 條는 일관적인 기술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條는 몇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1) 방향과 거리 : 각 條는 바로 앞의 條에서 언급된 산에서부터 이 條에서 기술하려는 산에 이르는 방향과 거리로 시작된다. 방향은 여덟방향으로 표시되고, 거리는 里를 단위로 해서 표시되고 있다. 거리는 읽는 사람에게 실측의 결과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산의 이름 : 다음에는 산의 이름이 나온다. 산의 이름은 대부분의 경우 '○○之山'이라는 형태로 기술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山'이라고 표기하는 예는 드물다. 이 보편적인 산의 이름을 기술하는 형태는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남아 있는 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니, 會稽之山과 같은 것²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산 이외의 기록대상으로는 丘가 간혹 보인다. 산의 이름이 특수한 사건과 관련되는 것이 있는데, 帝之搏獸之丘²⁶⁾를 예로

24) 條는 실제로 五藏山經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라 필자가 임의로 사용한 기록의 단위이다.

25) 南次二經, 「又東五百里, 曰會稽之山, 四方, 其上多金玉, 其下多硃石. 勺水出焉, 而南流注于溟.」

26) 西次三經, 「西次三經之首, 曰崇吾之山, 在河之南, 北望冢遂, 南望畜之澤, 西望帝之搏獸之丘.」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다. 또 전설적인 인물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산의 이름도 있는데, 夸父之山²⁷⁾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한편 산의 특성을 그대로 이름으로 옮긴 경우도 보이는데, 鳥鼠同穴之山²⁸⁾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五藏山經에 기록된 산의 이름은 기록하는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기록하던 당시에 채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산의 이름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3) 산의 모양 : 이것은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모래가 많다거나, 물이 없다거나 하는 등, 대개 그 기술이 불과 몇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4) 광물 : 다음에는 그 산에서 나오는 광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其陽多鐵, 其陰多銀”이나 “其上多玉, 其下多金”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五藏山經에 기록된 광물은 몇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黃金, 白金, 赤金, 銀, 銅, 玉, 鐵, 丹沙 등과 몇가지의 특수한 돌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광물의 소재지를 말하는 陽과 陰은 각각 남쪽과 북쪽의 斜面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의 동쪽이나 서쪽을 광물의 소재지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5) 식물 : 그 산에 있는 특수한 풀이나 나무, 꽃 등이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그 식물의 모양, 이름, 특수한 용도나 독성 등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식물은 평범한 식물이 아니고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모양을 설명할 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식물의 대부분은 약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6) 동물 : 그 산에 사는 동물을 鳥, 獸, 蛇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대개의 산에서는 동물의 각 종류[새, 짐승, 물고기 등]에 따라 한가지만 언급되지만, 한 종류의 여러가지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의 기록에서는 우선 모양이 나오는데, 그것은 “其狀如 ○○而…”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름이 동물의 우는 소리를 따서 지어진 것도 있다. 다음에는 그 동물의 특성과 효

27) 中次六經, 「又西九十里, 曰夸父之山, 其木多棕栢, 多竹箭, 其獸多犛牛羴羊, 其鳥多鷲, 其陽多玉, 其陰多鐵. 其北有林焉, 名曰桃林, 是廣員三百里, 其中多馬. 湖水出焉, 而北流注于河, 其中多瑠玉.

28) 西次四經, 「又西二百二十里, 曰鳥鼠同穴之山. 其上多白虎, 白玉. 渭水出焉, 而東流注于河. 其中多鱈魚, 其狀如鱸魚, 動則其邑有大兵. 濫水出于其西, 西流注于漢水. 多鰲魼之魚, 其狀如覆鉢, 鳥首而魚翼魚尾, 音如磬石之聲, 是生珠玉.」

용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상징하는 특수한 徵兆가 나온다. 효용은 그 동물을 먹거나 차고 다니면〔佩之〕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형태로 기록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그 동물이 상징하는 徵兆는 그 동물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내용인데, 일어나는 일은 鳳凰이 天下의 안녕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앙에 속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지역은 산이 아니라 郡, 縣, 邑, 天下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五藏山經의 기록이 이러한 행정조직이 생긴 이후, 즉 秦代나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특정의 동물이 단순히 효용이나 徵兆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 뿐이 아니라, 아래에 예로 제시한 昆侖之丘에서 나오는 새와 같이 天界의 특정한 임무를 가진 것도 있다.

한편 이 동물들도 앞서의 식물과 같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 모양은 여러 동물과 사람의 모양을 조합하여 보통의 동물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아무런 모양이나 이름이 없이 단순히 怪獸, 怪鳥, 怪蛇로 기록된 동물도 있는데, 이것은 기록자가 그 지역에 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 강 : 다음에는 그 산에서 발원하는 강의 이름이 나온다. 강의 이름 중에는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이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강의 이름도 단순히 ‘○○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산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之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산에서는 한줄기의 강물이 흘러 나오지만, 아래에 예로 제시되는 昆侖之丘에서처럼 하나의 산에서 여러 물줄기가 흘러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강의 이름은 반드시 水로 표시되고 江으로 표시되는 법이 없다. 이것은 기록자가 고대 중국의 북방문화권에 속하는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의 물의 명칭으로는 관행적으로 북방에서는 水와 河만을 썼고, 江이라는 명칭은 남방에서만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²⁹⁾ 한편 강에 관해서는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과 흘러 들어가는 본류, 혹은 海域이 기록되고 있다. 海域에는 東海와 渤海, 西海가 나온다. 중국에 西海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西海가 있는 것으로 믿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五藏山經의 지리지식이 경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상이 가미된 것이나 전해진 바를 그대로 기술한

29) Li, Fang-Kui, "Archaic Chinese"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pp. 394-395.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8) 강의 광물과 동물 : 모든 강의 광물과 동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광물은 ‘其中多銀’의 형태로 기록되고, 동물의 경우에는 산에서의 동물을 기록하는 형태와 거의 같은데, 강에서는 주로 魚, 貝로 그 종류를 구분한다. 이들도 특수한 효용이나 徵兆를 가진 경우가 있다.

(9) 帝와 神 : 五藏山經에서 西山經에 국한하여 그 산이 帝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혹은 그 산에 어떤 神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산과 帝와의 관계는 그 산이 帝의 소유물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예로 帝之下都를 들 수 있다. 또 神은 帝가 관장하는 질서의 안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神은 특정의 산에 거주하거나 그 산을 지키는 존재로 나와 있다. 帝에 관해서는 그 형상이나 활동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나 神은 모양, 이름, 그가 나타날 때의 특수한 현상, 그의 天界에서의 임무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에 帝는 비가시적인 존재신인데 반해³⁰⁾ 神은 가시화되어 있는 활동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神의 형상은 대개 짐승과 사람의 각 요소의 모양을 조합한 것이 많은데, 앞서의 동물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神은 인간이나 동물, 식물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라고 보기 쉽지만, 실제로 五藏山經에 나타나는 神의 성질은 볼 때 이 구분은 그리 명확한 것이 아니다. 우선 神의 형상을 보면 다른 동물의 형상과 기술의 형태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으니, 대부분의 神의 형상은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조합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어떤 神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의 재앙을 예고하는 徵兆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鍾山의 기록에서는 天界에서 벌을 받은 神이 흉악한 동물로 변하고 또 불길한 徵兆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³¹⁾ 따라서 동물과 神은 서로 통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어째서 개별적인 산과 관련된 帝와 神이 西山經에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해답이 없다. 혹자는 이것이 시베리아의 남서부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서쪽에 특별한

30) 西次四經의 崑崙山에 나오는 黃帝는 예외적으로 가시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31) 西次三經 : 「又西北四百二十里, 曰鍾山, 其子曰鼓, 其狀如人面而龍身, 是與欽鴉殺葆江于昆侖之陽, 帝乃戮之鍾山之東曰嵒崖. 欽鴉化爲大鵝, 其狀如雕而黑文白首, 赤喙而虎爪, 其音如晨鶴, 見則有大兵. 鼓亦化爲鵝鳥, 其狀如鵝, 赤足而直喙, 黃文而白首, 其音如鶴, 見則其邑大悍.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³²⁾ 이 문
제는 장래에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요소가 각 條에 항상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1)과 (2)는 어느 경우에도 나와 있지만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五藏山經에서 나오는 지역이나 지형을 표시하는 단어로는 산과 강[水],
그리고 바다[東海와 西海]가 있고 그 외로는 流沙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條의 길이는 다양한데, 짧은
것은 10여자에 지나지 않으나, 긴 것은 100여자에 이른다. 다음에 지금
까지 언급한 각각의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條를 예로 들어
보겠다.

서남쪽으로 400리를 가면 昆侖之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天帝의 下
都로써 神陸吾가 이 곳을 지키고 있다. 이 神의 형상은 호랑이의 몸에 아홉개
의 꼬리, 사람의 얼굴에 호랑이의 발톱을 하고 있다. 이 神은 天界의 九部와
帝의 정원의 사계절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산에는 짐승이 있는데, 그 모양은 양
과 같으나 네개의 뿔이 있다. 그 이름은 土犛라고 하는데, 이 짐승은 사람을
잡아 먹는다. 이 산에는 또 새가 있는데 그 새는 별과 같으나 크기가 원
양새만하다. 그 이름은 歛原이라고 하는데, 이 새가 칠으로 새나 짐승을 쫓면
그 새와 짐승이 죽어버리고, 그 칠으로 나무를 쫓면 그 나무는 쫓겨 죽는다.
[다른]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순조라고 한다. 이 새는 天帝의 기물과 의복
을 관장한다. 나무가 한가지 있는데, 그 새김새는 아가위같으나, 꽃이 노랗고
열매는 붉으며 그 맛은 오얏같은데 색이 없다. 그 이름을 沙棠이라 하는데,
[이 나무가] 물을 막을 수 있어서,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물에 빠져 죽지 않는
다. 또 풀이 한가지 있는데 그 이름을 빈조라 한다. 그 모양이 해바라기 같고
맛은 파와 비슷한데, 이것을 먹으면 근심이 멎는다. 黃河가 [이 산에서] 나와
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의 無達로 흘러들어간다. 赤水가 [이 산에서] 나와서
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氾天之水로 흘러 들어간다. 赤水가 [이 산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醜塗之水로 흘러 들어간다. 黑水가 [이 산에서] 나와서 서쪽

32) 一九八六年의 미국아시아학회총회의 한 분회에서 이 문제가 토론될 바가
있다.

으로 흘러 大杵로 흘러 들어간다. 이곳에는 괴상한 짐승과 새가 많다.³³⁾

이러한 條가 모여서 하나의 次經을 이루는데, 次經의 끝에는 그 次經을 개괄하는 문장이 붙어 있다. 이 문장은 (1)그 次經에서 기록된 산의 숫자와 거리, (2)그 산이 모여 있는 지역의 신의 형상, (3)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쓰는 물품과 희생으로 바치는 짐승을 기록하고 있다. 西山經을 제외한 다른 經에서는 條에서 神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이 經들의 次經에서는 그 지역의 동일한 神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두번째의 신의 형상이다. 이 신은 대개 한 次經에서는 이름이 없이 동일한 형상의 신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⁴⁾ 그러나 西山經에서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른 神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西次二經에는 17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산의 神은 ‘人面馬身’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7산의 神은 ‘人面牛身’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³⁵⁾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西山經에서 산의 등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든 산을 똑같은 의미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산들에도 인간사회의 관직의 높고 낮음과 같은 위계질서가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

33) 西次三經：「西南四百里，曰昆侖之丘，是實惟帝之下都。神陸吾司之。其神狀虎身而九尾，人面而虎爪。是神也，司天之九部及帝之囿時。有獸焉，其狀如羊而四角，名曰土螻，是食人。有鳥焉，其狀如鴛，大如鴛鴦，名曰欽原，蠹鳥獸則死，蠹木則枯。有鳥焉，其名曰鷦鷯，是司帝之百服。有木焉，其狀如棠，黃華而赤實，其味如李而無核，名曰沙棠，可以禦水，食之使人不溺。有草焉，名曰養草，其狀如葵，其味如蔥，食之已勞。河水出焉，而南流東注于無達，赤水出焉，而東南流注于汜天之水。洋水出焉，而西南流注于醜塗之水。黑水出焉，而西流于大杵。是多怪鳥獸。」

34) 예를 들어 東次三經에는 「凡東次三經之首，自尸胡之山至于無皋之山，凡九山，六千九百里，其神狀皆人身而羊角。其祠，用一牡羊，米用黍。是神也，見則風雨水爲敗。」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35) 西次二經：「凡西次二經之首，自鈴山至于萊山，凡十七山，四千一百四十里。其十神者，皆人面而馬身。其七神皆人面牛身，四足而一臂，操杖以行，是爲飛獸之神。其祠之，毛用少牢，白菅爲席。其十輩神者，其祠之，毛一雄鷄，鈴而不糝，毛采。」

인다. 즉 西山經의 첫번째 經에는 冢, 神 등의 명칭이 붙은 산이 있고 이 산들에 대한 제사에는 다른 산에 대한 제사에서와는 다른 물품이 쓰이고 있다.³⁶⁾ 이러한 특수한 명칭이 붙은 산은 그 제사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산에 대한 관념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산들간의 차이는 條의 내용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즉 어떤 산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는 반면, 다른 산에서는 여러가지의 동식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곧 개별적인 산에 대한 관념이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기이한 동물이나 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산은 더욱 신비한 산이 되는 반면 그러한 동식물이 없는 산은 일반적인 산으로 그치고 마는 현상이 條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經은 몇개의 次經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中山經에는 그 수가 특히 많아 中次十三經에 이른다. 이것은 中山經에 기록된 지역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거나, 혹은 가장 잘 알려진 지역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經은 次經에서의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개괄하는 짧은 문장으로 끝나는데, 여기에는 산의 숫자와 거리 외에는 다록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³⁷⁾ 각 經에서 기록된 지역이 고대 중국의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의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나, 아직 어떤 뚜렷한 정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五藏山經에 기록된 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이 어떤 성격을 가진 지역인가를 관찰할 수 있다. 五藏山經에서 기록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산과 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도 포함하

36) 「凡西經之首，自錢來之山至于驪山，凡十九山，二千九百五十七里。華山，冢也，其祠之禮，太牢。隰山，神也，祠之用燭，齋百日以百犧，瘞用百瑜，湯其酒百樽，嬰以百珪百璧。其餘十七山之屬，皆毛牲用一羊祠之，燭者百草之未灰，白席采等純之。」

37) 예를 들어 南山經은 「右南經之山志，大小凡四十山，萬六千三百八十里」라는 말로 끝난다.

고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五藏山經의 각 經은 이 세계를 다섯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서 하나의 세계를 다섯부분으로 나누었는가에 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으나, 呂氏春秋나 禮記의 月令篇에 나오는 五方の 관념을 생각할 때 한 세계를 다섯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고대 중국인이 지닌 세계에 대한 인식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섯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세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을 五藏山經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증거로 南山經의 첫번째 산이 西海에 붙어 있고,³⁸⁾ 東次四經의 첫번째 산이 北海에 붙어 있는 것³⁹⁾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세계를 기술함에 있어서 산이 기록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곧 고대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산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五藏山經의 구조를 보면 그 기록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산에 국한되는 것이 분명하다. 강은 산에 부속되는 것이지, 결코 독립된 지역이나 지형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바다도 산의 기록에서 간혹 언급될 뿐 그 자체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대인이 산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곧 고대인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관찰하는 일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지금까지 필자는 五藏山經을 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그 내용에도 논급하여 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五藏山經에 나타난 고대인의 산에 대한 관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五藏山經에서 나타나는 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형태는 지형

38) 「南山經之首曰雝山，其首曰招搖之山，臨于西海之上，…」

39) 「又東次四經之首，曰北號之山，臨于北海。」

상의 구분이다. 즉 산은 모든 기록의 중심적인 대상인 바, 이것은 곧 산을 다른 지형, 예컨대 강, 호수, 평야 등으로부터 구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적인 구분은 그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공간적인 구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산들은 산들끼리의 하나의 독특한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여타의 세계로부터 구별되고 있다. 산에는 산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현상이 있으며, 그 현상을 통해 산은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산은 그 자체의 독자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부터 구별되고 인간에 의해서 특수하게 인식되는 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五藏山經의 기록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는 없어도 산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어떤 실제적인 경계를 두고 지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산은 인간의 세계와는 구분되면서도 위치상으로는 반드시 인간의 생활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겠는데, 동물이 나타날 때의 징조가 곧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공간과 산을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라, 의식세계에서의 공간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구분은 산과 여타의 지형, 혹은 그 지형적 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개의 세계를 서로 대칭되게 배열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산은 개별적인 산이 아니라 동질성을 가진 산의 집합이 이루어 내는 세계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인식된 독특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산은 단순히 여기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지형적인 특성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독특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이 독특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체적인 요소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체계상의 요소가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며, 실제적인 현실

에서의 경험적 의미를 띄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산은 여러 종류의 물질과 현상이 나타나는 세계이다. 이러한 물질과 현상은 인간의 생활공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축되어 있다. 산은 강의 발원지이고, 귀중한 금속의 산지이며, 인간생활에 특수한 용도가 있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기이한 동식물이 사는 곳이다. 또 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재앙을 예고하는 동물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天界에 속하는 神이 거처하며 다스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바로 산을 독특한 세계로 인식하게 되는 구체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산에 대한 관념은 단면적이 아니라,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에 대한 관념은 두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인식이 융합하여 하나의 인식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인식을 산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산을 인간에게 호의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산들이 이루는 세계가 인간의 접근을 막는 요소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산에 접근하게끔 유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산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소는 산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괴이한 현상과, 인간에게 해로운 동식물의 존재, 동식물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형상, 그리고 인간사회에 재앙을 초래하는 징조를 나타내는 동물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산은 인간이 거주하지 못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세계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올 징조를 나타내는 동물의 출현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五藏山經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징조는 단순히 동물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神에 의해서도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러한 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神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동물인

것이다. 이 동물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 오히려 이 동물들이 인간세계의 단순히 자연현상에 의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정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각종의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동물들이 인간사회의 현상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은 인간의 통제력과 이해가 미치지 않는 하나의 세계이며 인간은 이 세계를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지배하는 세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산은 인간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세계이다. 이러한 힘은 산이 인간생활에 제공하는 실용적인 가치를 통해서 나타난다. 즉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한 효용을 가진 것을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니, 여기에는 그러한 효용을 가진 식물과 동물이 있다. 또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이 인간이 사용하는 광물을 제공하는 세계라는 점이다. 이러한 광물이 반드시 산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는 점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五藏山經의 문맥으로 보아 산은 이러한 광물이 나오는 주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광물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동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고고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대의 중국에서 금, 은, 동, 옥 등의 광물은 실용적인 생산도구나 일상적인 생활도구로는 그리 사용된 바가 없다. 이러한 금속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되는 祭器의 제조에서였다.⁴⁰⁾ 따라서 광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산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고대인이 가장 중시했던 제사에서 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은 인간에게 그들이 가장 중시했던 祭器의 원료를 공급하는 지역이며, 따라서 이것은 곧 산이 인간의 의식세계를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40) Chang, K.C. *Art, Myth, Ritual: The Path to Political Authority in Ancient China*, pp.95-106.

그러나 이 두가지의 요소는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짐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인간에게 호의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동물과 인간에게 불길한 徵兆를 제공하는 동물의 형상의 설정방법은 동일한 것이다. 즉 불길한 동물이라고 더 흉칙한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동물이라고 아름답게 묘사되었거나 한 일은 없는 것이다. 또 산을 두려움의 측면에서 인식할 때나 산을 인간에게 호의적인 세계로 인식하는 어느 경우에도 산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더우기 산은 신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그러면서도 산은 각각의 산에 존재한다고 믿은 神의 위상에 따라 그 세계 안에서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세계이다.

이렇게 볼 때에 고대의 중국인 가지고 있던 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념은 산을 특수한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산은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이다. 산이 이루는 세계는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산에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곧 인간이 산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양면성을 가진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산은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산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관념이 존재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산이 이루는 세계를 정적인 세계로 보지 않고, 항상 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시에 인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살아 움직이는 세계로 파악한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단순히 존재하는 세계로 보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세계로 파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馬真이나 水經注와 같은 고대의 지리지에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
 이것은 장래에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가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결론적인 이론은 아니다.
 인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지적인 공간내에 모든 세계의 현상을 설명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중국인은 가지적
 질서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한 것이며 어떤 추상적인 공간을 설정하지
 인은 어떤 공간적인 질서 五藏山經에서 산이 이루어내는 세계로 나타난
 및 질서를 인식하는 방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고대의 중국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고대 중국인이 세계와 그 세계의 각종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인의 의식
 간인 인식한 지상의 세계와 天界는 산의 집합이 이루어내는 공간에서
 經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
 계와는 구별되어 지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五藏山
 일단 天界라는 하나의 세계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계는 인간의 세
 사실상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내에서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天界가 지상에서 인식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神, 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五藏山經의 분석을 통해서 필자는 비교적 중요한 인식의 체계를
 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고대 중국의 사상사적인 측면
 같은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체계의 일부분
 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체계를 갖춘 불교와
 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현상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연구하
 다. 따라서 고대의 중국인이 그들이 인식한 세계를 어떠한 형태로 인식
 할 때, 그것은 반드시 山海經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방법이 고대의 중국인에게 있었다고 가정

지 않기 때문에 五藏山經만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속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러한 가설을 제기해 보는 이유는 중국의 소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기록이 끊임없이 실제적인 인물, 연대, 장소 등에 묶여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五藏山經에서 나타난 인식의 방법과 軌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고대의 중국인이 가지고 있던 인식체계에서 경험적 사실과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소설적 허구 등의 다양한 사고방식이 혼합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山海經과 같은 고대의 기록을 오늘날의 개념적인 구분을 통해 검토한다는 것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의 파악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장래에 이러한 가설을 시험해 볼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 Cassirer, Ernst. *Essays on Ma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Chang, K.C. *Art, Myth, Ritual: The Path to the Political Authority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江紹源, 中國古代旅行之研究. (上海: 商務印書館, 1935).
- 鄭德坤, “山海經及其神話” 史學年報 第四號(1932), pp.127-152.
- Eliade, Mircea. *The Sacred &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1959).
- 玄 珠(沈雁冰), 中國神話研究 ABC(上海, 世界書局, 1929).
- 高去尋. 山海經研究論文集(香港: 中山圖書公司, 1973).
- 李豐楙. 山海經 — 神話的故鄉(臺北: 時報出版社, 1983).
- 凌純聲. 山海經新論, 國立北京大學民俗學叢書 142卷(臺北: 東方文化公司, 1951).
- 魯 迅, 中國小說史略. 重刊本.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3).
- 蒙文通, “略論山海經的寫作時代及其產生地域” 中華文史論叢 1卷(上海: 中華書局, 1962), pp. 43-70.
- 小川琢治. “山海經考” 先秦經籍考(上海: 商務印書館, 1931) 下卷, pp.1-92.

Ronan, Colin A. *The Shorter Science & Civilization in China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譚其讓, “山經河水下游及其支流考” 中華文史論叢 7輯(上海: 古籍出版社, 1978) pp. 173-192.

吳 哈, “山海經中的古代故事及其系統” 史學年報 第三號(1931), pp. 81-106.

吳承志, 山海經地理今釋(? : 1922).

袁行霈, “山海經初探” 中華文史論叢 11輯(上海: 古籍出版社, 1979), pp. 7-35.

袁 珂, “山海經寫作的時地及篇目考” 中華文史論叢 7輯(1978), pp. 147-170.

_____, 中國古代神話. (上海: 商務印書館, 1954).

_____, 山海經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拙稿, “山海經小考” 中國文學 6輯(1979), pp. 141-160.

_____, “山海經의 神話的構造에 관한 檢討” 中國文學 7輯(1980), pp. 141-154.

_____, “山海經에 나타난 神의 性格” 東亞文化 19輯(1981), pp. 81-112.